

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안전보건협의체' 정기회

주남현 기자 | 승인 2025.10.30 17:08

김철상 지사장 "현장과 소통 강화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최선"



농어촌공사 광주지사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협의체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농어촌공사

| 한스경제=주남현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는 30일 회의실에서 안전보건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전보건협의체는 추진중인 도급 공사에 대해 ▲작업의 시간 ▲사업주와 수급인 간 상호 연락 방법 및 공정조정 ▲작업장에서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등 산업 재해 예방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이날 회의에는 공사감독 및 안전업무 담당자, 현장대리인 등이 참석해 현장의 안전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김철상 지사장은 "협의체 운영을 통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청렴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계자들에게는 최근에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사례를 전파하고, 영농기에 따른 공사 일시 정지를 해제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주남현 기자 tstart2001@sporbiz.co.kr